

 국토교통부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
	배포일시	2022. 1. 18.(화) / 총 2매(본문2)	
담당부서	건설안전과	담당자	• 과장 서정관, 서기관 정덕기, 사무관 유연형 · 안일찬 ☎ (044) 201-3573, 3552, 4593, 3562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국토부 장관, 유관기관과 긴급 건설안전 점검 회의 개최

- 산하기관장 · 유관단체장 참석... 건설안전 위한 각고의 노력 당부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1월 18일(화) 일선 건설현장의 안전 경각심 고취를 위한 **건설안전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**하였다.

○ **노형욱 장관** 주재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서는 5개 산하기관장* 및 건설 유관단체 5개 협회장*이 참석하여, 전국 단위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과 제도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.

* 한국토지주택공사, 한국도로공사, 국가철도공단, 인천국제공항공사, 한국공항공사

** 대한건설협회, 대한전문건설협회, 대한건축사협회,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, 한국주택협회

□ 참석자들을 이번 회의를 통해 평택 물류창고 화재, 광주 아파트 붕괴와 같이 최근 연이어 발생한 **후진적인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** 정부와 공공기관, 산업계 모두 깊은 자성과 근본적인 개선 노력을 실천해 나가기로 하였다.

□ 특히, **노형욱 장관**은 “건설산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이익과 공기단축 보다는 **안전**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본 원칙이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”며,

-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.
- 이 자리에서 회의 참석자들은 소관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 계획도 논의하였다.
 - 국토부가 수립한 전국 건설현장 점검 계획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은 도로, 철도, 공항, 주택 등 소관현장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키로 하였고,
 - 약 2만 5천여 개 민간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시공사·감리사를 중심으로 하는 자체 점검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 협회가 회원사들을 적극 관리하기로 하였다.
- 노형욱 장관은 “건설시공과 안전관리 없이는 건설산업이 바로 설 수 없는 만큼, 건설 현장에 안전이 문화로 깊이 뿌리내리고 안전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”을 강조하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안일찬 사무관(☎ 044-201-3562)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